

한국미술사연구의 과제와 방법론

문명대*

- I. 머리말
- II. 한국미술의 조형의지와 미술사관의 모색
- III. 한국미술사연구의 과제
- IV. 한국미술사연구방법론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미술사연구(30년)를 회고하고 전망한 세기말인 1990년대에서 13년이 지난 21세기 초인 오늘(2003. 10) 다시 “한국미술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한국미술사연구의 과제와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다.

한국미술사연구는 50여 년의 연륜을 쌓았고 학부나 대학원에서 미술사연구 인원도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오히려 활발하다고 말해지고 있다. 실제로 연구 열의나 업적은 한결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사연구가 세

* 동국대학교 교수.

계 최고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미술사연구의 과제나 방법론 그리고 미술사에 대한 안목이나 사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덜 이해되고 있거나 좀더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분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13년 전에 논의했던 미술사연구의 과제나 방법 등에 대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해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미술의 조형의지와 미술사관의 모색

한국미술사 전체를 관통하여 하나의 조형사상이나 조형의지가 일관되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한 시대에도 조형의지는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작품을 조성하는 작가의 의지가 서로 다르므로 어느 시대나 여러 가지의 조형의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주류적인 造形意志와 부수적인 의지가 공존하므로 당 시대의 主造形意志를 파악하고 아울러 부수적인 의지도 밝혀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 조형의지는 시대마다 주조형의지가 다를 수 있다. 가령 선사시대미술의 조형의지는 생명력의 분출이라 할 수 있고, 삼국시대 내지 고려시대는 靈驗과 감동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는 충효와 자연성의 조화의지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사시대인 신석기시대 무늬토기의 무늬나 청동기시대의 거울, 방울, 칼, 그리고 고분시대의 金冠, 마구, 칼, 거울 등은 모두 영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사시대도 삼국시대 이후와 마찬가지로 영험성이 거의 주조형의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생명력보다 더 主意志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불상이나 불화, 불탑이나 佛具 등이 가지고 있는 불교의 진리인 緣起에 의한 靈驗性이 造形美의 주된 의지였다는 것은 『三國遺史』나 『東文選』 등에 누누이 강조되어 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국가적 사상이고 兩班이 국가의 주체세력이었으므로 四君子나 山水를 회화의 주대상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忠孝와 산수가 절묘하게 조화된 것이다. 이런 의지는 다른 분야에서도 직간접으로 나타나 조선조 미술의 주조형의지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미술 등도 여전히 조성되었으므로 하나의 의지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라 하겠다.

이러한 조형의지나 미술사를 정확히 이해하자면 미술사가의 眼目 또는 觀點이 요구된

다. 이를 美術史觀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른바 미술사에 대한 관점이라는 뜻이므로 학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양식적 미술사관, 형식사적, 정신사적 미술사관, 도상해석학적 미술사관, 예술심리학적 미술사관, 사회사적 미술사관, 문화사적 미술사관 등 많은 미술사관이 등장했다.¹

오늘날 미술사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미술사관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들 가운데 하나의 사관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구의 대상이나 연구자의 성격에 따라 하나의 사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사관을 서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들을 총체적인 상관관계성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²

III. 한국미술사연구의 과제

2003년 현재의 미술사학계는 논의해야 할 많은 연구과제, 즉, 각 시대별 造形意志 내지 造形思想의 특징이나 연구방법의 구체적 방안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분야별 연구와 중복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원칙적이고 이론적인 면만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분야별 과제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1. 조각사

조각사분야에서의 당면한 과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

¹ 文明大, 「미술사의 역사」, 『한국미술사방법론』(열화당, 2000. 5), pp.13-22.

² 文明大, 「韓國美術史研究 30년: 總觀」, 『美術史學研究』 188호(한국미술사학회, 1990. 12), pp.7-21.

³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가. 광동석, 「韓國彫刻史研究30年: 先史-三國時代」, 『美術史學研究』 188호(한국미술사학회, 1990. 12), pp.61-88.

나. 최성은, 「韓國彫刻史研究30年: 統一新羅-朝鮮」, 『美術史學研究』 188호(한국미술사학회, 1990. 12), pp.89-100.

다. 문명대, 「광복오십년 한국조각사의 연구」, 『한국미술사방법론』(열화당, 2000. 5) 및 『韓國學報』 83(일지사, 1996. 6).

첫째, 조각사 내지 미술사의 기본개념인 形式과 樣式, 그리고 圖像解釋學 등에 대한 명쾌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조각사연구의 기본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형식은 獨尊, 三尊, 九尊 같은 상의 배치방식이나 丈六像, 等身像, 大形像, 中形像, 小形像 같은 크기나 형태, 그리고 둥근 얼굴(圓形顔), 사각형 얼굴(方形顔), 사다리꼴 얼굴 같은 얼굴형태나 삼산형관(三山冠), 花冠 같은 관형식 등은 형식에 속하는데 상의 배치나 상의 대소나 모양의 형태나 類型을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양식은 상의 구도, 형태, 양감, 선, 무늬 등이 이루는 아름다움이나 이들이 시대나 지역 또는 작가에 따라 특징지어지는 流派의 독특한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도상학 또는 도상해석학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독존인 釋迦佛, 彌勒佛, 藥師佛, 阿彌陀佛, 毘盧遮那佛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의미나 상징성, 혹은 역사적 의의 등을 파악하거나 삼존상인 三世佛과 三身佛의 구도 의미나 사회적 사상적 특징과 역사적 의미 등을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런 형식, 양식, 도상해석학의 차이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조각사를 논의할 때 한국조각사에 대한 연구는 어느정도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外來樣式의 수용과 새로운 양식의 정립에 대한 과제가 좀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처음 불상이 수용되어 새로운 한국불상이 정립된 이래 각 시대별로 새로운 외래양식인 인도나 중국의 불상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 새로운 물결, 이른바 전환기의 미술을 수용하는 것은 그 시대 그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삼국시대도 인도양식을 수용하여 중국적 신앙식을 정립한 북위양식과 북제·주 내지 수양식이 삼국에 영향을 미쳐 삼국양식이 정립되며,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인도 굽타양식을 수용한 중국의 성당양식을 수용한 통일신라의 중대신라양식인 이상적 사실양식이 정립된다.

신라 말 고려 초인 後三國期 전후로 중국의 五代, 宋樣式이 들어와 새로운 양식이 성립되며 일부 遼의 양식도 들어오고 있다. 이 당시 인도의 팔라양식이 중국에 수용되었는데 이것이 후삼국 내지 고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쟁점이 되고 있다. 羅末麗初에는 元末明初의 양식과 라마계 양식이 수용되는데 근래 이 양식의 수용에 대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라마양식이 수용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 논란의 쟁점인데 이 경우는 원나라 匠人이 조성했다는 敬天寺10層石塔의 부조상에서 라마양식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전통양식이 강하게 보인다든가 고려시대 在銘佛像 가운데 라마양식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라마양식의 등장과 성행은 1400년 전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더 많은 자료의 출현에 의하여 이 점은 확실히 밝혀질 것이므로 너무 성급한 단정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상학, 또는 도상해석학의 과제이다. 현재 한국조각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삼세불과 삼신불의 실제작성시기, 반가사유상의 명칭과 조성시기, 미륵불상과 미륵보살상의 도상특징,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의 도상특징과 성격, 팔부중상의 명칭과 배치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정밀한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조각에서 좀더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분야는 암각화 등 선사조각과 각 시기 무덤조각, 그리고 역대왕이나 유명 인물의 초상조각(影像) 등인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편이어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각 대학의 교수진이나 박물관 학예직의 분포가 근래 들어 회화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 상대적으로 조각사 학자들의 배출이 부진해진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각사연구의 현실적 과제로 생각된다.

2. 회화사

회화사는 근래에 가장 융성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회화사 분야도 조각사 분야와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런 점은 생략하고 차이점만 논하겠다.⁴

한국회화사 연구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는 회화작품들이 조선조 시대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전의 자료들은 고려려 고분벽화 내지 백제·신라의 벽화(단편), 신라의 사경화나 고려 불화 내지 벽화 등에 표현된 자료를 단편적인 회화자료 및 문헌기록과 비교하여 당시의 회화사를 최대한 복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벽화나 불화의 산수·인물·동식물 그림들을 확대 재편하여 당대의 회화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공백기의 한국회화사는 어느 정도 복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은 더러 시도되었지만 좀더 체계화시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⁴ 회화사연구의 과제나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가. 안취준, 「朝鮮王朝時代의 繪畫」, 『韓國美術史의 現況』(예경, 1992)

나. 홍선표, 「韓國繪畫史研究 30年: 일반회화」, 『美術史學研究』 188호(한국미술사학회, 1990. 12), pp.23-46.

다. 홍선표, 「韓國繪畫史研究 80년」, 『朝鮮時代繪畫史論』(현암출판사, 1999. 6), pp.16-50.

라. 홍선표, 「조선시대회화사연구동향」, 앞의 책, pp.51-73.

마. 홍선표, 「광복50년의 한국회화사연구」, 앞의 책, pp.74-108.

둘째, 조성배경이나 작가의 성향을 분석하는 면에서도 족보나 문집을 찾아내어 심도 있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경향이 나타나 회화사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회화의 수요층의 성격이나 소요경비 등 사회 사상사적인 접근에서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한편 좀더 유의할 점은 사상사나 사회사가 직접적으로 회화의 양식변천에 관계된다고는 볼 수 없고 조성배경에 다층구조로 관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양식사나 유파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나 산수화나 인물화의 도상해석학적인 분석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일반회화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산수화나 인물화 등도 도석인물화와 마찬가지로 도상해석학적인 분석도 시도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회화사에서는 도상해석학이 활용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인물이나 동식물 심지어 산수에 이르기까지 도상적인 특징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3. 공예사

공예는 일찍이 잡다한 기예라는 뜻으로 '雜技' 또는 '雜藝'라 했을 정도로 종류가 다종다양하다. 재료별 종류만 논의하더라도 陶瓷, 金屬, 木, 紙, 玉石, 刺繡, 皮革 등 대상이 무척 많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도자공예 밖에 없고 금속공예가 약간 있는 정도이며, 다른 분야는 희귀하거나 아예 없는 정도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예분야의 연구과제는 연구분야를 좀더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⁵ 금속공예 연구나 목공예나 옥석공예(벼루 등), 종이공예 연구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 골고루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공예사 연구자 또한 제한된 연구자뿐이므로 한 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분야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자사나 금속공예사 분야에서도 현재 形式史

⁵ 공예사 분야의 연구과제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가. 김재열, 「한국공예사연구 30년: 도자기」, 『미술사학연구』 188호(한국미술사학회, 1990.12), pp.111-124.

나. 안귀숙, 「한국공예사연구 30년: 금속공예」, 『미술사학연구』 188호(한국미술사학회, 1990.12), pp.125-144.

다. 강경숙, 「한국도자사연구 50년」, 『韓國學報』 83(일지사, 1996 여름호), pp.116-145 및 『한국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12 재수록).

위주로 연구되는 경향을 탈피하여 양식사 연구도 과감히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器形의 종류나 모양의 형식과 이의 편년 등도 중요하지만 청자거나 鐘의 구도, 형태, 양감, 선, 무늬 등이 이루는 조화와 아름다움의 특징이나 변화를 논의하는 양식사의 연구가 미술사연구의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예사에도 도상해석학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토기(접시, 잔, 골호 등), 청자, 분청, 백자 같은 도자공예, 금관, 종, 운판, 향완, 사리기 같은 금속공예가 가지고 있는 도상적인 특징을 이른바 특성이나 의미를 시대나 사회에 따라 어떻게 변해지는데에 대한 해석학적인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청자나 분청, 또는 백자의 발생에 대한 조형배경까지도 논의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건축사

건축은 기본적으로 공학적인 構造物이므로 건축기법을 모르면 건축사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인문학자인 미술사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난해성이 있게 된다. 그래서 건축사학은 건축학과 출신인 공학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건축사는 엄격한 의미에서 인문학에 속하는 미술사의 한 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어려운 건축공법을 모르면 구조비례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建築技法史가 건축사의 중요한 분야로 자연 부각되어 기법적 건축사가 곧 건축사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기법적 건축사와 미술사적 건축사를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기법적 연구를 기본토대로 하여 미술사적 건축사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건축사 연구의 바람직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서양에서는 건축사가 미술사의 중심이자 종합적 미술사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사와 동떨어진 다른 분야로 이해되어 왔다. 이것은 서양은 석조건축이므로 건축 자체가 건축이면서 조각이고, 회화(벽화)여서 종합적인 미술로 인식되었지만 목조는 건축기법이 위주여서 종합적인 미술사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벽화와 단청은 물론 들보나 공포 등에 용 등 동식물조각이 풍부하므로 서양건축 못지 않게 종합적인 미술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⁶

둘째, 건축을 기법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기둥이나 공포, 들보, 또는 지붕의 형태를 유형적으로 계통화시키는 형식(柱心包, 多包式) 위주로 건축사가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건축

형식은 물론 건축사의 기본이지만 미술사적 건축사는 양식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 건물의 배치구도와 구조비례, 형태나 선과 색채의 아름다움에 대한 양식적 특징과 변천을 연구하는 것이 현 한국건축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용조각 등 목조각의 양식연구에 주목한다면 건축편년연구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 한국건축사 연구는 목조건축이 주요 대상이고 목조건축 위주로 연구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에도 석굴사원, 석탑, 석빙고, 무덤 같은 석조건축과 博塔, 전축 건물 등 博造建築 등도 골고루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한국미술사연구방법론

한국미술사를 연구하는 방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⁷

첫째, 미술사연구의 기초는 미술의 造形意志를 밝히고 美術史觀을 정립하는 것이다. 즉, 한국미술의 조형의지는 필자의 경우 이미 밝혔듯이 선사시대는 생명력의 활성화, 삼국·고려시대는 영험과 감동, 조선시대는 忠孝와 자연산수의 조화의지에 두어야 하며, 또한 문화사적 미술사관을 기본으로 한 종합적 미술사관을 지향해야 하며 미술사연구의 기본방향을 세워야 한다.

둘째, 그 다음 단계로 미술사 사료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選定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사의 1차 사료인 미술작품은 각 시대나 각 나라마다 부지기수로 다종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

⁶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가. 한재수, 「한국건축사연구 30년: 선사-고려」, 『미술사학연구』 188호(한국미술사학회, 1990. 12), pp.145-174.

나. 김동욱, 「한국건축사연구 30년: 조선-근대」, 『미술사학연구』 188호(한국미술사학회, 1990. 12), pp.175-190.

다. 김성우, 「건축역사학의 정체성」, 『한국건축사연구』 2(한국건축사학회, 2003. 5)

라. 이희봉, 「건축사 연구방향의 재점검」, 『한국건축사연구』 2(한국건축사학회, 2003. 5)

⁷ 미술사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필자의 견해를 여러번 밝혔는데 전체적인 관점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점이 있다.

가. 문명대, 「현대 한국미술사학의 새로운 모색」, 『한국미술사방법론』(열화당, 2000. 5 재수록), pp.23-31.

나.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 30년과 연구방법」, 『한국미술사방법론』(열화당, 2000. 5 재수록).

모든 사료를 다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가운데 미술사 사료로서 꼭 필요한 작품이 어떤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각 연구자의 안목 또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미술사학자의 안목이나 관점이 미술사연구의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선정된 사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상적 내용이나 특징을 밝히는 형식사적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상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는 무엇을 상징하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도상해석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이들 사료들의 구도비례나 형태, 양감이나 선의 양식적 특징과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이를 시대별 양식이나 지방유파별 또는 작가별로 양식을 계통지우고 나아가 시대별 특징에 따라 編年을 설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러한 아름다움이나 양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량사적 또는 비교사적 방법과 함께 사회사상사적 방법도 적용되어야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첫째, 한국미술의 조형의지와 미술사관의 모색, 둘째, 한국미술사연구의 과제, 셋째, 한국미술사연구의 방법론 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런 문제는 미술사학자들이 항상 진지하게 모색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나 방법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key words): 조형의지(Representational Volition), 미술사관(Art Historical View), 영험(Incantation), 조각사(History of Sculpture), 회화사(History of Painting), 공예사(History of Crafts), 건축사(History of Architecture)

Tasks and Methodology of the Korean Art History

Moon Myung-dae*

We now have 50 years of accumulation in the study of Korean art history. The number of students and scholars doing research in the university has also increased greatly. Researches are actively going on and noticeable achievements are being made in the field. But there is still a way to go until the standard of the study of Korean art history reaches one of the top levels in the world. More enhanced understanding and in-depth discussion is required in the tasks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of Korean art history and in the connoisseurship and art historical point of view.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accomplishments so far and make a suggestion for the future direction.

The Art History circle today has a lot of tasks to fulfill. In this chapter, discussion will be confined to funda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to evade redundancy. We will talk about the tasks in each field.

The tasks pending in the study of the History of sculpture may be listed differently according to scholars. First,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eliminate any misunderstanding that might arise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basic concepts such as 'form', 'style' and 'iconology'. Second, further study needs to be done regarding the

*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introduction of foreign styl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styles. Third, further studies must be made with the iconographic and iconological approach. Fourth, more discussions should ensue in the sculpture of pre-historic ages including the rock carved patterns, the sculptural relics retrieved from tombs, and the portrait sculpture of kings and officials. We look forward to having more intensive study and discussions made on those issues. Fifth, posts in universities and museums have recently been filled up mostly by those who specialize in the history of painting, resulting in a fewer number of students wanting to study the history of sculpture. It is, thus, one of the practical tasks to be solved.

The history of painting has been the most actively investigated field. One of the problems regarding the history of painting is that the relics are concentrated largely in the Joseon period. Such efforts have already been made but more systematic and activated studies should follow. Second, in-depth and elaborate analysis have been made in the background and the inclinations of the painters by searching the family-tree registers and the private anthologies of the related artists and people, resulting in an encouraging outcome. However, more efforts can be made in combining the socio-philosophical approach, for example, search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 group and the cost paid for the painting. Third, while active studies have been made in the stylistic development and the school of art, iconological analysis of the landscape or figure paintings has rather been neglected.

The crafts comprise various kinds of objects. Among them all, however, the most actively studied field is the ceramics along with the metallic arts. Rarely any study has been made in the rest of the object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he scope of study be expanded. Also, those who are alrwyady involved in this field should expand their boundary of interest. Second, a stylistic approach will have to be boldly initiated in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rafts; the studies so far confined in that of the ceramics and metallic arts' history have been made with a formalist approach. Third, an iconological approach also needs to be applied in the study of history of crafts.

Architecture is basically an engineering structure, and the history of architecture cannot be understood fully without the knowledge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echniques. It is, thus, hard for the art historians to make an easy access to the field.

However, the history of architecture also comprises that of the art historical architecture. The task now is to focus on the history of the art historical architecture based on the studies made on the engineering techniques. The history of architecture is recognized as the core part of art history and a comprehensive study of art history in the Wes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murals, painted patterns, and various animal and plant forms sculptured on the structural part of the buildings, so the buildings can be understood as a comprehensive work of art. Second, the history of architecture has been studied with the formalist approach categorizing of architectural parts like pillars, cross beams, and roofs etc. by types. Now, a stylistic approach should be applied 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Third, at present, the study of the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mostly deals with the wooden buildings. More interests should be shed on stone constructions like the Buddhist cave temples, stone ice storage, and tombs, and at the same time brick constructions like pagodas and buildings.

Various kinds of methodology can be applied in the study of the history of Korean art. Here are some suggestions.

First, the basis of the study of the art history is to reveal the representational volition of art and establish the art historical view. The representational volition of Korean art can be summarized as the 'activated vitality' during the pre-historic ages, 'incantation'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Goryeo Period, and 'loyalty and filial piety' and 'harmony with naturalness' during the Joseon Period. Also, studies should be conducted with various art historic views combined with the cultural historical view at its basis.

Second, accurate and strict selection of historic materials should be made. There can be a great number of art objects in various kinds and it's impossible to use all of them. Deciding which of them to deal with as material can differ according to the connoisseurship and the view of the scholar. Thus, the connoisseurship and view is the standard which decid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study of art history.

Third, the formalist approach should be applied first, categorizing the selected materials by types and grasping their iconographic features and contents. Also, iconological approach is necessary to find out what the iconographic contents mean, what

they symbolize and what significance they carry.

Fourth,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and beauty of the proportion, shape, volume, and line of each materials should be grasped,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tylistic feature of each epoch, each region, and artists. They can then be arranged in chronological order.

Fifth, minute analysis must be made of the changes of style. The method of comparative history and socio-philosophical approach should be applied to draw an accurate interpretation.

We discussed first, the representational volition of the Korean art and the art historical view, second, the tasks in the study of Korean art history, and third, methodology of the Korean art history. Art historians should pursue the above mentioned issues with sincerity and re-establish their own view and methodology.